

日 경제침략... 자원·역량 총동원

전주상공회의소, 수출규제 관련 기업대응 전북지역 설명회 진행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 산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오는 2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대응 전북지역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 내용,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atch-all)·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기업들의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수출입 기업들을 포함한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들

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일본 경제침략 대책민·관·정 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명회의 참가신청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ci.korham.net)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전북지역 20개소 유통업체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하루 한 번은 꼭 맛보는 '쌀', 얼마나 아시나요?

농진청, 다양한 쌀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쌀의 날(8월 18일)'을 앞두고 최근 달라진 쌀 소비 경향에 맞는 품종들을 소개했다.

한자 '쌀(米)'을 풀어 '八·十·八(8·10·8)로 표기하면 8월 18일이 된다. 여기에 '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쌀이 된다'는 의미를 더해 '쌀의 날'이 됐다.

농진청에서는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워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쌀품종은 먼저, '최고품질 쌀'은 밥맛, 외관, 도정 특성, 내재해성의 네 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육성된다.

현재까지 18품종을 개발했으며, '삼광', '영호진미', '하이아미', '해품',

'해담쌀', '현품', '진수미', '예찬', '해들' 등이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는 건강 기능성을 강화하고 가공성을 높인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 기능성 벼 품종은 '도담쌀', '고아미4호', '논근흑찰', '건양2호' 등이 있다.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밀처럼 잘 뿜아지는 '한기투', '미시루', '신길' 등 가공용 품종도 있다.

가공용 쌀 품종은 비식용 산업의 신소재분야에도 사용되며 화장품, 친환경 점도, 쌀가루 접착제 등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알 모양도 다양화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알맹이가 긴 자포니카 쌀이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자포니카 쌀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밥맛이 차지면서 쌀알이 길어



광복절을 앞둔 13일, 유치원 아이들이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우리쌀 홍보행사에서 쌀 점토로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수출용 쌀로 알맞은 자포니카 우량계통 '전주625호'를 개발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차별화 다양성의 시대에 맞춘 연구를

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가공·기능성 및 고품질의 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코레일, 광복절 기념 국내관광 할인상품 출시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상품을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북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상품은 '힘내자 KOREA!'라는 슬로건에 맞춰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가족과 친구 등 4인이 함께 여행하는 고객이라면 구간에 상관없이 9만 9천원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강릉선의 경우에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광복절을 기념해 매일 815세트(3260석)는 8만15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인터넷 특가 할인은 최대 50%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열차 이용객 중 매일 815명을 추첨해 KTX 5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벌꿀 잔류 동물용의약품 26종 동시 분석법 개발

벌꿀에 대한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잔류동물용의약품)'의 국내 기준은 현재 10종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26종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벌꿀에 대하여 허용된 잔류동물용의약품 성분 국내 기준 10종과 국외 등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16종의 기준을 추가한 26종에 대하여 신속·동시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 이번에 개발된 것이다.

식품연의 유미영 박사 연구팀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을 활용하여 개발한 이 분석법은 극미량의 화합물에 대해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에 준하는 수준의 벌꿀 잔류 동물용의약품 동시 분석법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벌꿀을 생산하는 꿀벌은 집단생활을 하는 관계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양봉가에서는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꿀벌응애 등 꿀벌에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최중생산물인 벌꿀에 잔류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그동안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10종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등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벌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동시다성분 분석법 마련이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유미영 박사팀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분석을 위해 퀘체스(QuEChERS) 및 고상추출법(SPE) 등의 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벌꿀 내 미량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정량하기 위해 질량분석법(LC-MS/MS)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석법을 확립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을 CODEX 가이드가인에 따라 다양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분석법을 확보하게 됐다.

식품연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벌꿀에 대한 잔류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한 국내 기준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분석이 이루어져 벌꿀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

전북농관원,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전북지역 20개소 유통업체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농관원과 유통업체는 GAP인증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 활성화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12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20개소를 설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는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 품목은 제철에 생산되는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등이다.

아울러, 전북농관원은 소비자가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AP인증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GAP인증 제도 홍보를 위해 '배달 GAP인증

홍보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

전북지역 인증농가는 10,928호(2019.8.1.기준)로 전국 농가수(91,564호) 대비 12.0%다.

이번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운영으로 GAP인증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경우에 전북지역 농가 소득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관원 정수경 지원장은 "이번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를 계기로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중소기업 추석 명절 특별자금 8천억원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김장근 본부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9월 27일까지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 3천억원, 기한연장 5천억원씩 총 8천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 모두를 포함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명절자금 특

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김장근 본부장은 "금차 추석 명절자금 특별자금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